

치 사

향기로운 초목이 온 산을 홍록(紅綠)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화답하는 푸른 봄, 약동하는 대지의 기운 또한 법주사의 새로운 도약을 반기고 있습니다.

신라 의신(義神)스님의 원력으로 창건한 지 1600여년, 법주사는 미륵신앙의 중심도량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구도를 위한 정진과 전법 도생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선맥을 계승한 금오선사의 수행가풍이 살아 있는 조사선의 종가이기도 합니다. ‘화두를 들면 산사람이요, 놓치면 죽은 사람’이라는 기치로 종단의 선맥을 이어주시고, 정화불사의 주역으로 헌신하시며 계율정신을 회복해 주셨던 금오스님의 자취와 더불어 그 규모와 역사는 물론 전통에 있어서도 이곳 법주사는 ‘호서제일가람’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화와 산업화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의 흐름속에서 산중의 각 교구본사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법주사 또한 마주하고 있습니다. 신도는 물론 참배객까지 감소하는 현실은 교구본사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은 문중의 화합과 수행자의 위상 정립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임 주지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원로 스님들을 충실하게 모시는 동시에 대중의 원만한 화합을 이끌어 원용살림의 모범이 되어 달라’고 당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은 새로운 생각, 획기적인 사고가 바탕이 되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조스님이 취임하게 된 것은 신선한 사고로 교구의 운영을 새롭게 일신해야 한다는 사부대중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조스님은 중앙종회의원과 국제선센터의 주지를 역임하며 현대적 감각과 국제적 안목을 겸비하고 향후 교구 운영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청사진의 실행은 신도들이 떠나는 신행공간은 그 본래의 존재가치가 전무하다는 반성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 지역인 충청지역의 포교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대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조스님께서 수행, 교육, 포교, 복지를 4대 과제로 제시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주사가 미래불인 미륵부처님에 대한 신앙을 꽃피웠다는 것은 현재가 아닌 ‘미래’, 현실이 아닌 ‘비전’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의 문제를 ‘바로 여기’에서 해결해야 미래의 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 맞추어 법주사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선구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1600년의 역사와 조사선의 전통이 아무리 자랑스럽다 해도 올곧게 계승하지 못한다면 풀잎에 맺힌 아침이슬에 불과합니다. 사부대중이 가득한 신행도량으로 변모시키고, 충청불교를 활성화시켜 나갈 때 비로소 호서제일가람의 면모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속리산의 신록들은 지금은 비록 작은 잎이지만 곧 울창한 녹음으로 온 산을 뒤덮을 것입니다. 충청지역 불교 또한 지금은 작은 신록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곧 울울창창한 큰 숲으로 성장해갈 것입니다. 사부대중이 신심과 원력을 한데 모아 교구의 발전과 활성화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2012)년 5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